

# '신성' 정현 vs '황제' 페더러...꿈의 대결 성사

'세계랭킹 2위' 페더러, 그랜드슬램만 19개...나이 들어도 기량 여전히

실력·경험·기술 불리하지만 뚜껑 열어보아야...오늘 오후 5시30분

2018 호주오픈 테니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현(22·한국체대·삼성증권 후원·58위)의 다음 상대가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7·스위스)로 결정됐다. 페더러는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8강에서 토마시 베르디흐(33·체코)를 3-0(7-6(7-1) 6-3 6-4)으로 완파했다. 테니스 샌드그렌(27·미국·97위)을 제물로 메이저 대회 사상 첫 4강 진출을 이룬 정현은 페더러와 결승 진출을 놓고 겨룬다. 세계랭킹 2위 페더러는 베르디흐를 맞아 1세트 초반 0-3까지 끌려갔다. 몸이 풀린 듯 스트로크의 날카로움이 회복됐지만 베르디흐 역시 차분히 점수를 더해 5-2를 만

들었다. 황제는 위기의 순간 더욱 빛났다. 페더러는 곧바로 3점을 얻어 승부를 일점으로 돌렸다. 타이 브레이크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2,3세트는 쉽게 풀렸다. 좌우를 찌르는 예리한 스트로크로 상대를 흔들며 리드를 놓치지 않았다. 베르디흐는 강서브로 빈틈을 엿봤지만 역부족이었다. 페더러는 현존하는 남자 테니스 최고의 선수다. 총 19개의 그랜드슬램 단식 타이틀을 획득했고, 29번이나 그랜드슬램 결승에 올랐다. 모두 남자 선수 최다 기록이다. 통산 98승은 지미 코너스(미국)의 109승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한다.

페더러가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기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981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마흔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최정상급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5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정현에게 페더러는 그야말로 거대한 산이다. 실력과 경험,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정현이 불리한 싸움이다. 하지만 노바 조코비치(세르비아·14위)를 꺾었을 때처럼 뚜껑은 열어보아야 한다. 정현과 페더러의 사상 첫 맞대결은 26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에 진행된다.



## '평창동계올림픽 무산' 노선영, 빙상연맹 비판

"우리 가족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동생 노진규 통증 호소도 외면" 폭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부실한 규정 확인 탓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노선영(29·폴킴핑)이 빙상연맹에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노선영 24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敝 노진규는 금메달 만들기에 이용당했고, 나는 금메달 만들기에 제외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4년 전 빙상연맹은 메달 후보였던 동생의 통증 호소를 외면한 채 올림픽 메달 만들기에 급급했

다"고 폭로했다. 빙상연맹의 선수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메달 후보가 아닌 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나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노선영은 "나와 내 동생, 우리 가족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사과는 커녕 책임 회피하기에만 비뚤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연맹인가"라며 "나는 지금까지 시키는대로 훈련했을 뿐인데 왜 나와 우리 가족이 이 슬픔과 좌절을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 이상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해 뛰고 싶지도 않다"면서 "빙상연맹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았다"고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다. 노선영은 김보름(25·강원도청), 박지우(20·한국체대)와 함께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대표팀으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빙상연맹의 매끄럽지 못한 처리로 뒤늦게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빙상연맹은 개인 종목 출전권이 없는 선수도 기준기복만 통과하면 올림픽 팀추월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지난 10일 "개인 종목 출전권이 있는 선수만 팀추월 주자로 나설 수 있다"고 통보해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 노선영 사태로 인해 빙상연맹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빙상연맹의 개혁과 처벌을 원한다", "빙상연맹의 확실한 책임과 변화를 바란다"는 등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뉴스스

## 김주찬, 2년 연속 KIA 주장 맡는다

노련한 경기감각에 득점권서 쓸쓸한 활약 펼치는 베테랑



KIA 타이거즈 외야수 김주찬(37)이 2년 연속 주장을 맡는다. 지난 16일 2+1년 총액 27억 원에 FA 계약을 맺고 KIA에 잔류한 김주찬은 계약 후 주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시즌 김기태 감독의 강력한 의지로 주장을 맡았던 김주

찬이었다. KIA는 8년 만의 우승을 이끌었던 김주찬에게 다시 주장 마크를 안기며 신뢰를 보였다. 김주찬은 2013 시즌을 앞두고 롯데에서 KIA로 이적했다. 당시만 해도 과격적이었던 4년 50억 원을 받

고 입단한 그는 1군 등록 일수를 채우지 못해 다시 FA를 체결하는 데 5년이 걸렸지만 지난 시즌부터 친구 이범호의 뒤를 이어 주장을 맡아 우승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야구 면에서도 2년 연속 100경기 이상 출장했고 2016 시즌에는 3할4푼6리, 지난 시즌에는 3할9푼의 타율을 기록하며 전력의 한 축을 담당했다. 예전과 같이 두자릿수 도루를 기록하는 주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노련한 경기 감각을 갖추고 있고 득점권에서 쓸쓸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베테랑이다. KIA 관계자는 "선수들도 김주찬이 계속 주장을 해주길 바랐고 코칭스태프에서도 지난해 김주찬이 주장으로서 해준 것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말수는 적지만 지난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선수단의 신뢰를 받았다. 김주찬 역시 올해 주장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주찬은 31일 선수단과 함께 일본 오카나와 스포링캠프로 출국한다. 지난해 주장이 된 뒤 "선수들이 마음대로 뛰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각오를 전했던 김주찬이 올해도 흥이 넘치는 KIA 선수단을 이끌며 2년 연속 우승을 맛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넥센, 김하성 데뷔 5년차 최고액...연봉계약 완료

최원태 최고액 인상·이정후 2년차에 역대 연봉

지난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김하성이 5년차 최고액인 연봉 3억 2000만원을 받는다. 넥센 히어로즈는 2018년 연봉 계약 대상자 40명 전원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시즌 유격수 겸 4번 타자로 활약한 김하성은 전년도 연봉 2억 2000만원에서 1억원(45.5%) 인상된 3억 2000만원에 사인했다. 김하성은 지난 시즌 141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2(526타수 159안타) 23홈런 114타점 90득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유격수로는 역대 3번째로 100타점을 기록하는 등 4번 타자로서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았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대표팀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다.

김하성은 KBO리그 역대 데뷔 5년차 최고 연봉자가 됐다. 2016시즌 나성범(NC)이 기록한 3억원을 넘어섰다. 올 시즌 선발투수로 활약하며 데뷔 첫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한 최원태는 지난해 연봉 4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233.3%) 오른 1억5000만원에 계약하며 데뷔 4년 만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신인왕을 휩쓴 이정후는 무려 8300만원(307.4%) 인상된 1억10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2년차에 역대 연봉자가 됐다. 기대에 다소 못 미친 서건창과 김민성은 2000만원씩 삭감되며 3억 80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연봉 계약을 맺었다. 40명 중 18명은 연봉이 올랐지만



김하성

13명은 삭감됐다. 나머지는 동결이다. 역대 연봉자는 투수 7명과 야수 6명 등 총 13명이다.

## 라틀리프·두경민, 허재號 승선...내달 월드컵 예선 출격

2018 남자농구 대표팀 12명 및 예비엔트리 확정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25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가족들과 웃으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귀화 절차를 끝낸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199cm)와 프로농구 1위 원주 DB의 심장 두경민(DB·184cm)이 허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5일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남자농구 월드컵 조별 예선전에 출전할 2018 한국남자농구 대표팀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23일과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홍콩, 뉴질랜드와 경기에서 출전할 12명의 선수 명단을 선발했다. 귀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라틀리프가 곧바로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라틀리프는 오세근, 이종현 등과 함께 대표팀 골밑에 힘과 높이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두경민도 최근 프로농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높이 평가받아 대표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정확도 높은 외곽슛과 활발한 움직임으로 대표팀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라틀리프와 두경민이 포함되는 대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김시래(LG)와 반복 수술로 경기 출전이 어려운 이승현(상무)이 제외됐다.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 ▲감독 허재
- ▲코치 김상식
- ▲가드-박찬희(전자랜드·190cm), 두경민(DB·184cm), 최준용(SK·200cm), 허훈(KT·181cm)
- ▲포워드-양희종(KGC·194cm), 이정현(KCC·191cm), 전준범(현대모비스·194cm), 허웅(상무·186cm)
- ▲센터-오세근(KGC·200cm), 김종규(LG·206cm), 이종현(현대모비스·203cm),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199cm)
- ◇예비엔트리 24인 선수명단
- ▲가드-박찬희, 두경민, 최준용, 허훈, 김시래, 김태술, 이대성
- ▲포워드-양희종, 이정현, 전준범, 허웅, 정호근, 최진수, 임도섭, 허일영, 양홍식, 송교창
- ▲센터-오세근, 김종규, 이종현, 리카르도 라틀리프, 하승진, 강상재, 최부경